

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사업개요					
구술자명	김갑성	성 별	남	출생연도	1950
면담자	정은주	소 속	미추홀시민기록단	감독자	
면담장소	독쟁이마을박물관	면담지원	박수자		
면담 일시	2024년 11월 6일	회 차	2	시 간	1시간 13분 51초
자료번호					
구술 개요	용일시장에 오게 되면서 몇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지역의 일을 맡게 됨. 그 과정에서 겪은 시장의 사업들에 관련된 기억을 남기다.				
주요 색인어	용일시장, 양복점, 비디오 가게, 책방, 빗물저금통, 회장님, 인하대학교, 외길, 종점, 벚, 9번, 10번, 흙길, 지하수, 가스배관, 협의체, 마을박물관, 큐레이터, 하수시설, 학생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시작멘트 : 일시 및 구술자와 면담자 소개				00:03-	
- 인사 및 소개				00:29	
2. 사전인터뷰와 회장님으로의 활동				00:03~	
- 2024년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 채록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함				01:44	
- 회장님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여쭙보고 있음					
3. 용일시장 회장님이 된 계기				08:24~	
- 회장님이 행정에서 요구한 것에 굉장히 잘 맞춰주시고 그 이상을 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끔 해주시는 것 같음				10:03	
- 회장님이 용일시장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가 궁금함					
4. 인하대학교의 종점				11:19~	
- 학생들이 출고지가 여기 있고 나중에 또 여기 지역을 주민들한테 여쭙봤더니 여기가 바로 9번 10번이 종점이었음				13:05	
- 외지에서 인하대 학교 온 사람들이 출근하는 코스가 바로 여기였음					
-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업을 하시다가 또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함					

5. 황당한 흙바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 오니까 진열장을 통관으로 해서 5m로 해서 크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진열해 놓고 바닥에는 고급으로 깔아서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신발 벗고 들어오는 거임 - 비가 조금 오거나 물이 흐르면 사람들이 여기서 물 날라서 뭐 쓰고 그러다가 흐르면 차가 지나가면 흙 흙 돌 깔고 흙이었는데 구멍 몇 개 정도가 차가 바퀴가 딱 들면 옷 지나가다 결혼식 가는 사람은 날벼락 맞는 거임 - 그래서 황당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단골이 되는 거임 	13:14~ 17:53	
6. 시장 안 지하수와 시장 발전을 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청소할 때 수도물 필요가 없음 - 통만 놓 자리만 있으면 화장실 물은 지하수로 써도 됨 - 빗물 저금통은 사업의 이름이 아니라 빗물을 가뒀다가 쓰는 거임 	17:55~ 25:06	
7. 용일시장의 변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부터 시작된 공감 프로젝트는 회원들한테 일주일에 20만 원씩 주식을 발행해서 용도 변경을 함 - 용일시장은 협의체를 만들어 변형에 지원을 많이 해줌 	30:50~ 35:47	
8. 원도심 디자인 사업 및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디자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만덕산수도 회사에서 와서 도와주고 주민과 설명을 했음 - 화단도 쥐똥나무 있는데 쓰레기만 잘 덮고 옛날에는 바깥에 길에다가 쓰레기 있으면 확 던지고 가고 그랬는데 내 눈이 거슬려서 녹지과로 전화했더니 꽃나무 심어서 이쁘게 해서 관리를 할 거라니까 하시라고 해서 세 개를 했음 - 관에서 해줄 적에는 주민이 먼저 해야 그 뒤에 도와주지 가만히 앉아서 도와주시오 하면 나 도와준 적 하나도 없음 - 구의원들이 다니면서 애로 사항을 다 찾아낸 다음에 큰 시장은 큰 시장대로 조례를 해주고 지금은 지금대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큰 시장은 큰 시장대로 조례를 해주고 지금은 지금대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작은 시장은 맨날 소외되게끔 되어 있는 게 현실임 - 시장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려면 돈을 많이 써서 동네를 만들어야 됨 	35:58- 44:12	
9. 용일시장의 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일시장에 하수 시설이 별로 없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녹으면 물이 얼어서 시장 안으로 들어와 선배님이 찍어놓은 게 있음 	47:54~ 50: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를 교육받고 소문이 나서 인터뷰 요청을 많이 함 - 용일시장에 왔을 때는 학생이고 뭐고 가게 와서 먹으려고 해도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자리가 없었음 		
10. 인하대 외길		50:50- 01:00: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안에 가운데 길이 건물이 없고 좌편이었는데 인하대생이 많이 다녀서 외길임 - 제물포역에서 내려서 주안역이나 제물포에서 많이 내려서 가까우니까 거기서 오는 길이 길이어 차 타고 오는 사람한테 내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도보로 오는 학생들도 많았음 - 선인재단이 있는데 시험 쳐서 들어간 게 아니라 구역구역 잘라버려서 거기까지 걸어 다녔음 - 옛날에 길이 있었는데 뚫어서 크게 만들었는데 겨울에 눈 와서 얼면 차가 더 못 올라와서 딱 짝은 거임 		
11. 마을박물관		01:00:1 6-01:1 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을 버리면 하천으로 들어갈 것이니 허드레 물 같은 건 자연스럽게 난다면 굳이 버릴 필요 없이 떼서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 흘려보내면 경제적이고 이득임 - 박물관을 만드는 데도 참여했냐고 묻자 1기생인데 2017년도에 여기서 교육받고 3층으로 올라가서 인하대 교수님이 강사로 교육을 받고서 여기서 해서 상설 전시했고 계획 전시 두 번 했고 야외 전시가 연결이 된 거라고 함 - 마을박물관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서 회장님께서 박물관에서 인터뷰하자고 하셨을 때 수업이 굉장히 좋았음 - 마을박물관이 작지만 후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음 		
12. 내 기억속의 용일시장 그리고 미래		01: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일시장이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서 안타깝다고 함 - 사람들에게 용일시장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냐고 묻자 옛날에 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습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고 함 		7-01:1 3:51
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활용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안 함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